

2002년 10월 24일

노풍 폭발 전야제 연설

사랑하는 우리 사원 여러분! 노 사장입니다.

주식회사 노란넥타이면, 제가 사장 맞지요?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사원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란을 떨어서 조금 미안합니다. 그래도
구경거리다 생각

하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우리 잔치를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잔치는 구경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같이 들어와서 잔치를 같이 한 판
벌리십시오. 괜찮습니다. 밀지지 않게 해드릴게요.

저 뒤에 계신 분 박수 한 번 치세요. 입사하십시오. 미래를 보장해 드리겠
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반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반란은 곧 정치혁명으로 크
게 변할 것이고

그리고 그 정치혁명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87년 우리는 군
사독재에 맞서서

환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6월항쟁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세력의
분열 때문에 끝내

그 승리의 연배를 다 거두지 못하고 절반의 승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90년 3당 합당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때 나갔던 것은 정치인들이 권력

을 쫓아가는 그런 일반적인 정치문화를 제가 거절한 것입니다. 거역한 것입니다. 지금 생

각해 보면 저 혼자서 반란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반란을 했던 죄로 그 뒤에 여러 차례 선

거에서도 떨어졌습니다. 종로에서 당선되고 가만있으면 또 되는데 부산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희생이다, 헌신이다 하는데 기존의 정치질서에 대해서 제가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권력을 지향하지 않는 정치, 지역구도에 저항하는 정치인은 바로 반란이었습니다.

저는 역시 그때도 지역구도의 반란을 일으켰던 죄로 또 떨어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끝

나야 됩니다. 정치인으로 끝내야 하는데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 반란은 그야 말로 처참한 패배로 끝나고 말았지만 죽은 저를 다시 살려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란은

인터넷에서 되었습니다. 인터넷 노무현 홈페이지 노사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때 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글을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모아서 노

사모를 만든 사람들, 그리고 노사모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새로운 현상에 대해

서 관심을 가져주었던 많은 분들이 저는 인터넷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죽었

던 제가 장관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0년 4·13총선에 도전했을 때 그 때 부산에서 당

선되면 대통령후보 하겠다 했지 떨어져도 대통령후보 하겠다고 말한 일이 없습니다.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라고 했는데 떨어진 사람을 다시 대통령후보로 만들어 놓은 것도 역시

인터넷의 반란입니다. 당내 1인 지배체제라든지 당내 측근정치라든지 비선정치라든지 하는

그 정치적 舊 실세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부닥쳐 싸웠습니다. 말하자면 당내에서 또 다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민경선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인터넷에 있던 반란군들이 오프라인으로 쏟아져 나와서 거기에 결합함으로써 그 반란은 저를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낡은 정치의 부정부패가 저를 또 한 번 밟았습니다. 저 또한 민주세력의 통합을 목표로 한

다고 하면서 옛날 정치인을 만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손해를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부패사건 때문에 또 떨어지고 그리고 당내의 이런 저런 세력투쟁 때문에 또 떨어지고 정치의 변화를 아니 우리 사회의 변화를 절대로 바라지 않는 자전거일보들이 저를 또 한 번 밟아버렸습니다. 저를 짓밟은 모든 사건들이 전부 낡은 정치질서에서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태까지 와버렸습니다. 이제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또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시지요? 또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반란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컴퓨터 앞에 앉아 가지고 열심히 클릭하고 있는 그 반란군들이 지금 있습

니다. 오늘 새벽 3시까지 7억5천만원 약 2만5천명이 참여했습니다. 직접 총 들고 나선 반

관군이 2만5천명이면 이 뒤에서 박수 쳐주고 용기를 북돋우고 보급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치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지만 반란군 대장이 되

고 싶은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반란은 저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반란군의 지도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반란은 떳떳치 못한 이 사회의 기득권에 대한 반란이고 낡은 정치문화에 대한 반란이고 원칙도 소신도 없이 보따리 싸들고 왔다갔다하는 철새정치에 대한 반란이고 그리고 원칙을 무시하고 반칙과 불복을 일삼는 불복정치의 반란입니다. 이런 반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반란은 저는 혁명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됩니다. 학

벌주의 사회에서 고등학교 밖에 안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 이것 혁명 아닙니까?

친일세력이 독재에 빌붙었던, 기회주의세력이 지배해 왔던 이 땅에 눈치보지 않고 줄 설 줄 모르는 정치인이 대통령까지 되어버리면 이것은 또한 정치혁명 아닙니까?

눈도장 찍고 줄서고 공천받기 위해서 손 비비고 이렇게 말하자면 계보정치하고 파벌정치하

던 이 정치 이것 저 안했습니다. 그것도 안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정

치 천지개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돈 없이 정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 없이 선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없습니까 는 어제까지고 이번에는 정말 염치도 없이 돈도 안쓰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천지개벽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혁명입니까?

여러분이 그 혁명의 조용돌이 속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것입니다. 신 나지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정치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돈없어도 정치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줄서지 않아도 정치하는 시대가 옵니다.

임종석의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당 갔다 저 당 갔다 이줄 섰다 저줄 섰다 걱정

하지 마십시오. 이제 정치인 몇 몇 사람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 우리 정치의 주역이 되는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이번 우리 연말 대통령선거에서는 왕을 뽑지 맙시다. 왕을 뽑지 말고 여러분의 친구를 뽑

읍시다. 그냥 친구가 아니고 소신 있고 원칙 있고 한다면 하는 사람 그리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친구 그지요? 친구는 친구인데 괜찮은 친구, 그렇게 가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자전거 신문들이 저를 그렇게 밟았는데 안죽고 살아나는 것 보면 아마 기가 찰 것입니다. 저는 언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언론이 정권 잡은 노무현을 두려워하지를 않는다. 정권을 두려워할 언론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독자는 두려워할 것이다. 국민은 두려워할 것이다. 왜 우리가 그렇게 밟았는데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내는 그 국민의 힘 앞에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지금 가슴에 고민이 많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불 때는 연을 날려야 되

지 않습니까? 연을 딱 올렸는데 바람이 꺼져버리면 연을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 바람 어쩔랍니까? 부채 들고 바람 부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바람이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저로서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남은 것은 꼭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꼭 이겨야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용기입니다.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의 정성을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바람을 일으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